

한국의 문헌정보학 건재한가?

李春熙 박사와의 대담*

대담자 : 李春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도서관협회장

전 한국문헌정보학회장

李壽相 사서

현 부산대학교도서관 근무

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재학

대담일시 : 1994년 9월 10일 10:00-15:00

대담장소 : 爾雅書室(李春熙 교수 개인연구실)

“최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논문을 두편** 생산하면서 제가 느꼈던 의구심은 매우 외람되게도 한국문헌정보학이 제대로된 성립구조를 갖추고 있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헌정보학이 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철학이나 사상을 견지하기 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힘, 아마도 미국의 기능중심적 실용주의 노선, 또는 학문방법에 있어서의 ‘과학’이라는 굴레에 매여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이 문제에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한국문헌정보학의 성립배경’이라는 연구테마로 나름대로의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이러한 조사작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한국문헌정보학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학문의 중심에서 서 계시면서 교수님이 직접 체험하셨거나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성립배경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

* 편집자주 : 이 대담기록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학과창설 10주년(1984-1994)을 맞이하여 그 기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적 문헌정보학’ 모색의 일환으로 생산한 것을 본지가 입수하여 실는 것이다.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0집, 1993, pp.413-453.

———.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제49권3호, 1994, pp.63-84.

항들을 설명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방 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서관계도 여러가지 혼란을 겪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교수님의 그 당시 경험을 중심으로 회고해 주십시오.”

내가 도서관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1954년경이었어요. 나보다 먼저 도서관계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국립도서관학교 출신들인데, 현재 도서관계에서 계속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내가 아는 범위로서는 박희영 선생, 이재철 교수, 천혜봉 교수 등이 있어요. 국립도서관학교는 1946년인가 생겨 6.25사변 직전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해방직후에 국립도서관학교를 만들고 실무적인 면에서 앞장선 사람은 박봉석 선생인데, 나는 그 분을 만난 일은 없어요. 그 분의 공로는 초창기 우리 도서관계에 아주 크다고 봅니다. 박봉석 선생은 해방 전에 국립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근무하다가 해방 후도 계속 근무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 분이야말로 우리 도서관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 혼란기에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것을 만들자고 하여 조선도서관협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분류표를 만들고, 목록규칙도 그 분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데 앞장섰으며, 또한 가르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우리나라 도서관계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그 뒤를 이을 사서의 양성은 6.25로 인해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전쟁 후 서울로 돌아왔는데, 전국적으로 폐허가 된 상태라 도서관도 재건하여 새출발을 해야 하지만 마땅한 일꾼이 없었어

요. 그래서 도서관협회가 결성되어 거기서 중심이 되어 임시 도서관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1955년 강습회를 조직하였지요. 강습회할 돈도 없어 아세아재단의 원조를 받아서 무료로 전국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국립도서관(현 롯데백화점 자리)에서 약 한달간 단기 강습으로 사서를 양성하였지요. 그 때 나는 거기에 1기생으로 들어갔지요. 나는 그 때 도서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도서관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제대로 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연히 느꼈지요. 내 기억으로는 강습을 춘추로 나누어 두번씩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강습을 두번 받았어요. 국립도서관학교 이후 그 당시의 교육이란 강습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957년 연세대에 도서관학과가 생기고, 도서관학당이 동시에 들어서고, 같은 해에 석사과정의 대학원 학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지요.

“1940년대 후반의 국립도서관학교 시절은 차치하더라도 1955년 이화여대에서의 교양 및 부전공과정, 1957년 연세대학이 대학교육과정으로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것은 낙후한 도서관현장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6.25전쟁 이후 그당시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문교부는 우리나라 사범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미국 남부의 피바디대학에 의뢰하였는데, 그 팀은 1년간 계약으로 한국에 나와 문교부에 사무실을 얻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는 당시 전쟁후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요. 아마 경비는 미국무성이 부담하였

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범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돌아갔어요. 보고서 중에 한국의 대학에 도서관학과의 하나도 없으니 하나라도 꼭 만들 필요가 있다는 권장사항이 끼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교부 관리는 도서관학과의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이기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껴, 어느 대학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고려하다가, 미국사람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미선계 미국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인 연세대학교에 설치를 권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백낙준 박사가 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총장한테 도서관학과의 설치를 건의하게 되었고, 백박사는 백방으로 도서관학과의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겠지요.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물론 알아보았을 것이고... 당시 일본에는 일본의 연세대학격인 같은 감리교 재단학교인 케이오(慶應)대학에 이미 생겨 있었어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람의 입김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보다 먼저 생겼고, 학과명칭도 도서관학과로 되어 있어, 연세대학에 도서관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게 되었지요.

“1959년부터 61년까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는 버제스 교수(Robert S. Burgess)가 연세대학에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유를 세가지로 언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첫째 연세대학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현대적 대학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이 프로그램의 실험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피바디 도서관학교 졸업생인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이 대학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고 한국말을 알고 있어 교수 역할이 가능하였으며, 세 번째 이미 단기간 교육과정으로 사서들을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수진,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학과는 만들었지만 가르칠 교수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피바디 사범대학에 의뢰하여 교수요원을 구성하였는데, 학부와 대학원과정, 그리고 1년과정의 부설도서관학교(학당)에서 강의를 담당할 사람은 미국에서는 스와이저(Swiger) 여사, 한국에서는 이미 선교사로 와있던 엘로드(Elrod)씨인데, 그는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를 마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 연세대학 산기슭에 있는 교수 사택에 거주하면서 도서관 일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를 하고 온 이봉순 선생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 서지관계를 담당할 민영규 박사, 이홍직 박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미국사람이 하는 강의는 1시간 중 30분 강의에 30분 통역, 알맹이있는 교육은 30분밖에 하지 못하였어요.

나는 그당시 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하고 이제철 교수, 미8군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지금은 정년하신 이명희씨 등의 3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해 도서관학당에도 학생이 들어왔지요. 강의는 따로 하지 않고 1년과정, 대학원 학생들과 합동강의를 하였지요. 대학원 학생은 보다 학문적으로 가르쳐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1년과정 학생들과 섞어 실무교육위주의 강의를 하여, 나는 기대한 것보다 취미가 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 당시 성균관대학 영문학과 대학원 과정에도 등록한 상태였는데, 문학을 하느냐 도서관학을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솔직히 문학을 하다보니 도서관학은 학문같지 않았어요. 매일 실무이야기만 하고, 등록금 문제도 있고, 한학기만 하고 나는

학당으로 가기 위해 적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학원장이 반대하여 적을 옮기는게 어려웠어요. 그후 일이 잘 풀리어 결국 도서관학당으로 적을 옮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학당 1기생이 되었어요.

“일각에서는 그 출발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다름아닌 기능중심의 미국도서관학의 사조, 다소 도제식 성격이 강한 미국 대학원과정의 학문이 학부과정으로 직수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한국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도서관학계 전반의 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미국의 도서관학계는 크게 보면 네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듀이가 나오기 전까지를 듀이 전시대, 듀이가 1887년 처음 컬럼비아대학에 도서관학과를 만들고 - 그 준비단계까지 하면 1883년대부터인데 - 그 무렵부터 1923년까지가 듀이학파시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1923년에는 유명한 윌리엄스 보고서(Williams Report)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듀이이후시대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한편,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학이 부각되는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도서관계가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요.

윌리엄스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듀이시대의 도서관학교육은 다분히 도제식이었고, 시립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강의를 했고, 대학에서 도서관학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과정, 즉 대학의 일부로 소속되어 한 것이 아니라 한 구석진 곳에 방하나 얻어 도제식으로 실무교육, 그것도 핵심 네과목인 분류, 목록 등을 위주로 하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카네기재단의 후원을 받아 미국도서관교육 전체에 대한 서베이를 하여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속에 여러가지가 많이 지적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은 도서관학교육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네가지 과목을 위주로 하는 실무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보다 진보적으로 도서관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다 가르쳐야지 종래의 그것만으로는, 그것도 도제식으로 해서는 학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정규학과로서 유니버시티의 일부로 출발해야지, 지금까지는 그 위치가 불확실하니, 이래가지고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선발부터 엄격해야 된다고 하었어요. 학생자격도 그 전에는 자격없는 사람들을 뽑아, 본인이 희망하면 쉽게 넣어주는 등 강습식으로 했나봐요. 그런 식의 기준없는 교육은 하지말라는 등 여러가지를 지적했어요.

윌리엄스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미국의 도서관학계가 자각을 하기 시작하여, 1926년 시카고대학에 도서관학과가 대학원으로 생기고, 나중에 박사과정이 생기지만, 1926년에 미국도서관교육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어요. 듀이시대가 문을 닫고 윌리엄스 보고서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시카고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도서관학을 높이기 위해 교수진을 도서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교수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교수들을. 윌리엄스 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진이 너무 저질이니 그것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교육학 박사 등 전혀 분야가 다른 교수들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1933년에 나온 「Intro-

duction to Library Science」를 쓴 피어스 버틀러(Pierce Butler)도 원래가 교육학 박사였을 것입니다. 그 책은 종래의 듀이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서관학을 이해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버틀러는 교육학적으로 또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측면에서 도서관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지요. 여담이지만 그이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었는가봐요. 길을 가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가 애석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해요. 아뭏튼 미국도 몸부림이 시작된거지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부터 미국도서관학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이 대학원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초기에 남겨놓은 듀이학파의 실무위주 교육의 영향이 강력하게 전통으로 오래 남아 지금까지도 사실 미국에는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처음 씨뿌려놓은 것이 말이지요.

“교수님은 1970년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서관학이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지도 이미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비록 짧지만 우리나라의 圖書館史상 가장 자람할만한 업적을 남긴 시기였습니다. … 과거 10년간을 편의상 둘로 나누어, 전반기를 모방의 시대였다고 하면 후반기는 모색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한국의 도서관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약진하는 70년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모방과 모색의 시대에서 일보 전진한 한국의 도서관학이 연구 개발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한 것입니다.’

매우 적실한 방향제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우리 도서관학계는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련의 반성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이 학문적으로 대학에서 출발한 것이 미국식위주로 될 수 밖에 없었어요. 선생도 없었고, 가르치는 선생도 미국사람들이니 자기들이 배운 범위내에서 가르쳐야하고, 한국에 관한 것을 배운 것은 이홍적박사와 민영규박사의 서지학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통역을 들여 그런식으로 강의를 하였으니까요. 1기생이 아마 13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중견간부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제대로 대학에서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기회가 없었기에, 호기심점,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한 것이지요. 배워보니까 분류는 DDC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듀이십진분류표를 겪어보니, 요전까지 박봉석씨 것은 자꾸 막혔지만, DDC는 훨씬 전개가 편하고, 그러니 돌아가서 박봉석씨 분류표를 버리고, 듀이십진분류법으로 바꾸어 재분류하게 되었지요. 이것도 하다 보니 또 막혔어요. 한국자료를 분류하는데, DDC는 미국사람들이 미국식으로 만들었기에 그 자체가 모순이 많았던 것이지요. 실제 해보니 모순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한국책인데, 한국문학이나 소설을 분류하려니 전부 소숫점이하로 적어야될 판이니, 그것도 그리 많지 않은 미국문학은 제일 앞에 배열하고 한국문학은 뒷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배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 안되겠다, 듀이분류법으로는 안된다는

반성이 그 당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에게 맞는 분류표나 목록규칙을 다시 착안하기 시작한거지요.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한국 것을 찾는, 한국십진분류법 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목록규칙 제정위원회, 한국도서관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일을 벌이기 시작하였어요. 대개 60년대 전후의 일인데, 이 때 쯤 반성이 일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듀이십진법을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고쳐 사용하였어요. 가령 미국문학은 한국문학으로 고치는 작업 등의 전개분류법이 그것이지요. 「동양자료를 위한 듀이십진 전개표」라는 것은 내가 처음 만들어 발표하였어요. 내가 국회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였는데, 그것을 국회도서관에 적용하였고, 그만 둔 뒤에는 국회도서관에서는 책으로 만들어 여러 도서관에서 사용하게 하였어요. 내가 국회도서관에서 한 일이었기에 내이름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듀이십진분류표로 분류하려면 듀이십진분류표와 전개표 둘 다 있어야 하니까 불편하여 이럴 때에는 우리 고유의 것을 만들자고 하여 한국십진분류표가 나왔어요.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된 일련의 토착화 논의에 대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과학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토착화를 문화적 종속(식민)현상에 대한 안티노미, 즉 한국적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여 학문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는 의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우리 분야에서의 토착화관련 문제제기도 유사한 관점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자체의 도서관교육도 나는 지금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었다고 생각해요. 도서관교육도 구라파

쪽하고 미국은 방향이 다르다고 봐요. 영국은 나중에 도서관학과가 많이 생겼지만,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지요. 프랑스의 경우, 사서직 연수를 국립고전학교라는 데서 하고 사서자격증을 주면서 양성하는 제도이거든요. 미국식 교육스타일 하고는 전혀 반대지요. 사실 문헌정보학은 나라마다 뿔뿔이, 가령 경제학하면 경제학, 자연과학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분야 학문은 나름대로 배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특징이 있지만...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자기의 나아갈 길이 어느 정도 서있고, 연구의 방향 설정도 어느 정도 서있고, 그런데 문헌정보학 계통은 구라파 사람 하는 방식이 다르고, 미국식이 다르고, 그 중간쯤 되는 데가 영국일 것입니다.

동양의 경우, 도서관학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데가 중국하고 일본이지요. 중국도 처음 시작한 데가 무한대학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도 미국사람 여자 분이 와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중국은 워낙 전통이 있는데다가, 같은 미국식으로 하더라도 무한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여기로 말하면 고전서지학 파트가 따로 있고, 요새 말하는 정보학 분야 따로 있고, 종래의 도서관학 비슷한 것이 있고, 우리하고는 다르더군요. 그런데 미국의 흥내를 그대로 낸 곳이 일본이지요. 그 다음은 우리이고. 그나마 거기서 조금 몸부림 친 게, 우리 대학(성균관대학 - 편집자)에서 시도했지만, 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정신은 잃지 않고 있어요.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대로의, 지금 구라파나 중국 모두 제각기 이니까, 어떤 논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

가, 우리나라대로의 이론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생이 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토착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일찌기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쓸것인가가 중요하지요. 말로만 토착화 토착화하는데, 토착화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비교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문헌정보학과가 서야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하나 개척해서 우리의 이론정립을 해서 우리의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막연하게 정보학 정보학 하다보면 남들한테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몇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통신의 한 간부되는 사람이, 그 때 이재철 교수가 도서관협회 회장할 적인데, 우리의 도서관학 고유의 한국목록규칙이라든가 분류라든가를 컴퓨터로 다된다고 떠들었어요. 나는 오래되어 자세한 부분은 잊어버렸는데,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재철 교수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항의공문을 보내 공식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자꾸 생길 염려가 있어요. 공부안하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못찾고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정보학이 어떻고 괜히 떠들고 있다가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때 이재철 교수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깔보이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 놓은게 없어 우리는 깔보일만큼 그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그전에 우리 스스로 실력을 배양하고, 이론정립을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확실히 해놓고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나는 지금 우리의 문헌정보학계가 가장 위기에 처한 때라고 봐요. 지금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학문으로서의 존립이유를 찾지 못하고, 남에게 먹히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도서관학과에 학생이 안온다고 문닫는 것 좀 보라고요. 내가 알기에 케이스 웨스턴, 시카고, 컬럼비아 등에서 문닫고 있어요. 이것은 학문으로서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이 무엇인가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학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아닌가. 경제학과 같은 것은 수지가 안맞더라도 문닫지 않을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까짓 것 있으나 마나 시시하고, 학문같지도 않고, 자기의 특별한 뭐도 없고, 국가 이득도 없고, 이렇게 깔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게 아닌가 싫어요. 나는 미국의 도서관인들이나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젊은 층이, 특히 대학원 학생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우리의 문헌정보학계를 다시 부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많은 연구발표가 나오고, 그런 것을 걸러가지고 우리 한국실정에 맞는, 우리 학문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정립이 나와야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수님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서관학을 정립하시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좀더 부연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도서관학과가 있는 대학은 1957년 연세대, 1959년에 이화여대, 63년에 중앙대에

생기고, 그 다음해인 64년도에는 내가 주축이 되어 성균관대학에 설립되었어요. 문교부 서류내는 것도 사람이 없어 내손으로 직접 했어요. 나는 그 때 설립신청하는 서류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 서류가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적 실정에 맞는 도서관 전문직 사서를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가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어요. 종래 연세대나 이화여대는, 특히 미션계 학교들이야 처음부터 미국 사람들의 입김이 있는, 아메리카나이즈된 학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나 이화여대에 가면, 서양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사람들의 아메리카나이즈된 행동부터가 나는 싫었어요. 성균관대학은 성균관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성균관대학이 국립대가 되어야 하는데, 해방 후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서울대학이라는 곳은 일제 식민지대학인 경성제국대학 후신이거든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일본사람들이 식민지 대학을 만들고, 성균관대학을 전락시켜 놓았어요. 해방 후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국립대학으로 서울대학이 되었고, 성균관대학은 사립대로 남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균관대학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교를 전통으로 하는 학교이지요. 그렇다고 오늘날에 와서 유교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숭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학에는 한국에 관한 커리큘럼을 많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표현한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모르면 안되겠기에 한문 강좌를 많이 넣고, 서지학도 한국서지학, 중국관계 서지학 등으로 나누었고, 또한 어학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식민지로 36년간 고생은 하였지만 일본자료도 많이 있어 일본어도 가르쳤

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영문학과에 장익봉 교수라고 라틴어를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도서관학자가 되려면, 서양서지에도 밝은 사람이 한두명 필요할 것 같아 라틴어도 교양과목에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물론 그것은 교양과목이었지 도서관학과의 커리큘럼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라틴어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없어졌는데, 서양의 중세관계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양서지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라틴어 배경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개설하였는데, 그런 것을 개설하니 그 당시 교무과 직원이 날보고 무슨 도서관학과에 라틴어가 필요한가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그런 편찬을 다 들었어요. 그 당시 도서관학과 전체 분위기도 그랬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학생들에게도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면, 교수소개하고 하는 격식이 있어요. 그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성균관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생긴 연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학하고 다른 것은 이런 거다, 전통있는 모교 성균관대학의 전통과 아울러 도서관학 교육도 특징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학생들의 머리속에는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문헌정보학의 커다란 세가지 축 즉, 도서관학, 정보학, 그리고 서지학으로 그 영역이 구분되어 제각기 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다소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인지 도서관학자나 서지학자보다는 정보학자이기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학문적 진지성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유행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사회에 컴퓨터가 등장하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고, 정보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도서관학과의 명칭도 초기 Library Economy에서부터 시작한 후 Library Science를 많이 사용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1969년인가 70년에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4개월간 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간판이 벌써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고 붙어 있던군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두개의 파트로 나누어 2-3층은 Information Science를, 그 위층들은 종래의 Library Science로 나누어 학생들은 처음부터 따로 전공별로 모집하여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미국 도서관학과들의 커리큘럼에 상당한 변화가 왔지요. Information Science에 많은 역점을 두는 미국교육이라는게 실무위주의 정신이랄까, 프래그머티즘의 배경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컬럼비아대학도 듀이가 시작하고, 사실은 얼마 뒤 문을 닫았지만, 상당히 오래 있다가, 뉴욕 올버니대학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가, 그뒤 다시 컬럼비아에서 열고, 그러다가는 최근 아주 문을 닫았어요. 시카고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박사과정은 아마 그냥 있다고 그러지요. 석사과정만 닫았을 겁니다.

미국사람들은 수지가 안맞고, 학생이 안오고, 경영이 이상하다면 문닫아버려요. 동양사람들은 안그러잖아요. 조금 수지가 안맞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한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문닫고 하는 경솔한 짓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해요. 우리 생리에는 안맞는데, 그 영향을 그대로 한국이 받아가지고, 요새 걸핏하면 정보학이면 일이 다되는 것처럼 착각하고들 있더라구요. 도서관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도서관의 일이 많고, 하루에 들어오는 자료가 많고, 그것을 그때 그때 처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나누어주려고 하면,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그것이지요. 과거처럼 수작업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컴퓨터라는 편리한 기계가 나왔으니 그것을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학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컴퓨터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하드웨어는 컴퓨터공학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분야 전문가가 할 것이고, 요새 컴퓨터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가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 되었어요. 정보학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유행되어가지고 공학 쪽에서도 그렇고 경영학과 계통에서도 경영정보학 등 관련 정보학과의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현재의 정보학적 요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학 분야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경영정보시스템(MIS) 연구는 최근 들어서는 그 한계를 나타내어 시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학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MIS나 정보학은 전산학이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학문분야에 뒤지게 되지요. 최근 전산학 분야에서 정보검색이나, 하이퍼텍스트 등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 연구는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에 결국 우리 분야의 관련 연구들은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그들이 정보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검색기법이나 검색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각종 문헌정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보학연구가 기술지향적으로 나아간다면 기초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그들은 알맹이인 기술력을 다 차지할 것이고 우리 분야의 연구자들은 껍질만 붙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조직이나 처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위 즉, 정보추구행위(information seeking behavior)와 같은 영역만이 우리 것으로 남는데 이 또한 심리학이나 인간공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야에서 정보학적 요소가 필요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영역 설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학적 요소도 한국도서관의 제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그 영역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정보기술의 응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보학의 범주를 의식한다면 이것은 ①한국상황에서 현장을 앞서기는 새로운 것, ②연구의 과학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잇점, 그리고 ③다소 현장관찰이 필요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의 이론과 방법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뚜렷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이 현장의 문제해결보다는 연구문제를 연구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단위로 축소시켜 현장과 유리된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학문이나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것과는 관련이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약 4년정도 되었나요. 연세대학교 같이 성균관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었어요. 그전부터 전남대학 등에서 문헌정보학과로 많이 바꾸었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서 왜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지 않는냐고 성가시게 굴었어요. 그때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학과명칭이라는 것은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한번 바꾸면 영구히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지 무슨 동네 약국간판처럼 주인 바뀔 적마다 바뀌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서는 남보기도 학문같이 안보이고, 경솔해보이고, 어떻게 함부로 학과명칭을 자네들 기분내키는대로 자네들이 도서관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서 남이 하나까 우리도 따라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학과명칭에 대한 불만은 나는 30년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자네들보다 30년전부터 걱정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직 바꾸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거야, 그런 식으로 타이르곤 하였지요.

사실 약 25년전에 4개대학의 도서관학과 선생들이 모여서 학과명칭을 바꾸자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이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도서관이라는 ‘관’자가 그게 집이라는 뜻이다. 그럼 도서관건물을 연구하는 학과냐. 병원이라는 ‘원’자가 집이라는 뜻인데 ‘병원학’이라고 하지 않고 ‘의학’이라고 하질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서관의 현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 그것을 학과명칭으로 해야지 도서관학과가 무엇이나. 영어의 library는 조금 다르다. library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도서집서’라는 뜻이 있다. 미국사람들이 Library Science라고 말하면 도서관학 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때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문헌정보학과로 하자. 옛날부터 많이 해온 서지학과로 붙이고 내용은 그렇게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문헌공학과로 하자느니 별 기상천외한 제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때 문헌정보학과로 대개 통일이 되었지요. 학과명칭을 바꾸려면 그 대학의 학칙부터 바꾸어야 했어요. 교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학교당국으로부터 합의가 있어야 되었어요. 학교차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문교부에 제출하자고 4개 대학이 합의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수속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필모 교수가 말하기를 4개 대학이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연대쪽에서 안된다고하니 명칭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세대에 물어보니까 학교당국의 반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 한참 지났는가, 서울에 있는 몇대학이 다시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그 때 안을 가져온 것이 정보학과였어요. 연세대학에서 정보학과로 하자고 한겁니다. 도서관학과장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과 권기원 교수가 학과장 할 적 일인데, 그래서 나는 필쩍 뛰었지요.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정보학과라는 말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학과라고 하면 제 밥도 못찾아 먹고 언젠가는 교수직도 다 쫓겨나고, 문닫게 생겼으니, 빨리 3개 대학 교수들과 다시 만나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신촌에서 모였지요. 이재철 선생하고 연세대 교수들이 다 나오고, 이화여대 교수들, 그리고 우리 학과 교수들 전부, 3개 대학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중앙대학은

이미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었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간단히 우리가 정보학과라 했다가 나중에 정보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이상하게 방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설자리가 무엇이나, 이것은 안되겠다. 이전에 한번 토의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보학 중에서도 문헌만 관련된 것이라는 뜻에서 ‘문헌’자를 붙이고, 또한 이미 일부 학과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혼란을 피하고 통일한다는 의미에서도 좋으니 문헌정보학과로 하자고 내가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 때 안서들렸더라면 정보학과가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1960년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한다=한국적 현실에서 본 사서직의 임무”(도협월보 1(8) 1960 11, pp.28-30)에서 한국도서관계의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도서관계는 지금까지 기술적 사무 이상의 일은 거의 해 놓은 것이 없다. 그것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곳까지 달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도서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심과제는 아직도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만났던 어느 미국인 사서는 자격이 부족한 사서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큰 백화점이나 식료품상점에서 손님이 요구하는 물건을 바로 찾아다 주는 판매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인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왔고, 대학도서관인들은 대학의 행정사무관과 똑같은 서기취급을 받아왔다. 우리는 종래에 있어왔던 기술적인 사무를 지양할 때라고 생각되며, 학계의 일원으로서 도서관과 인간생활을 대상으로한 연구자가 되어야 하겠다. 기술과 병행하는 본질을 먼

저 찾아야 하겠으며, 관념을 버리고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계속하는 도서관학자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위와 같은 현상이 한국의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민(일반대중)을 계몽, 도서관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공공서비스에 그 뿌리를 두지 못하였기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도서관은 교수님이 근대도서관 사상연구에서도 밝혀주셨지만 이러한 사명을 띄고 출발하였으나, 일제의 36년이라는 사회적 통제시기를 거치면서 도서관은 자발적 근대화 장치이기 보다는 관료화되고 통제받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수난을 당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해방은 관료적 도서관에 미국식 도서관봉사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당시 가장 큰 실수는 일본식 도서관을 내부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와 같은 열악한 한국도서관에 대해 한탄해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다른 유형의 도서관들보다 제일 발전을 못하였는데, 우리나라만 그런건가, 대만도 그런가하고 연구테마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도 일제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거기도 공공도서관이 대학이나 특수도서관보다 못한 지를 연구를 해보지 않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제 식민지도서관과 그 이후의 모습을 서베이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도서관협회의 통계를 보면, 제일 발전하지 못한 곳이 공공도서관이지요. 다른 나라도 공공도서관이 제일 많거든요. 또 거기가 주가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나는 일제의 식민지도서관의 잔재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일본이 여기와서

도서관을 만든 것은 한국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정착을 보다 원활하게 문화적으로 침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소위 조선총독부도서관이라는 것은 거기의 분류표 하나만 보더라도 금방 나타나요. 분류표를 보면, 1문 총류, 2문 철학 등으로 나누다가 마지막 12문인가(?) 조선문이라는게 있어요. 한국에 관한 책은 전부 거기에 모아놓아요. 한국의 풍속, 한국의 지리, 역사 등 한국에 관한 것은 일단 거기에 모아놓고 총독부 고관들이나 소위 식민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라든가 한국 식민지화에 도움이 될 연구프로젝트를 주어가지고 연구시킬 때 책을 얼마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따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철저하게 식민지도서관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 세운 것이지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36년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는 유리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관청인 행정기관으로 보았지요. 미국에서처럼 이웃에 있는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다고요. 당시 이용자들은, 기껏해야 학생들이나, 관리들이 이용했을까. 소위 행정중심, 즉 식민지 행정중심의 도서관이었기에 해방 후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관리들, 문교부 관리들이지, 거기서 파견한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답습한 것이지요.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시골의 어떤 공공도서관은 책을 잃어버리면 책임이 돌아올까봐 야에 서고를 잠가버린 도서관도 있더라요. 엄대섭 선생이 도서관을 돌아보니 그런데가 있더라고 어디에 글을 쓴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게 다 뭐겠어요. 완전히 식민지 행정시대의 행정관리들이 도서관을

취고 흔들고... 또 사실 예산도 없고, 거기다 대고 사서직 대우를 해달라.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해라.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라 등 아무리 떠들어봐야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랬지요. 자네들이 앞으로 도서관계 일선에 나가서 진짜 사서직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제 일차적으로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키워라. 공공도서관을 키워서, 물론 그 수도 많아야 되고, 그 질을 높여 도서관이 민중들과 호흡을 같이 할 때, 자네들이 전문직 사서로서 대우를 받자,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안된다 말아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운동을 일으켜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소용 없어요, 안되는 걸. 그러나 요즈음은 조금 나아졌어요.

“저는 교수님에 대한 어떤 글에서 근대 한국도서관사 기술의 가장 큰 의미를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도서관사보다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맥락에서 도서관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는 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중요한 관점의 발견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해독이 일본의 식민지도서관의 잔재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있다고 보고... 잘모르는 사람들, 또 일본인들 중에서도 더러는 망언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근대화가 되고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도서관제도를 포함하여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 다 일본이 처음 시작한 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는 않았을 것입니

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도서관의 전통이 무엇이냐,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1910년 이전으로... 그래가지고 근대도서관 사상연구를 한 것이지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우리에게 식민문화가 들어올 당시 지식인들, 19세기말, 서구문물이 들어오기 전 개화기 시대의 지식인들, 우리의 선배 지식인들은, 그 당시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하면, 한국이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도리가 없다. 배우는 길밖에 없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가르키는 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계몽사상이지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몽한다. 교육한다. 그래서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쳐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여기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다, 보성고등학교 등의 사립학교들이 전부 그 무렵에 생겼어요. 우후죽순처럼 자고나면 학교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일반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외국에는 이런 도서관이 있다하더라,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자는 회의를 열고, 대한도서관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만들었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유학한 유길준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낀 해외의 여러가지 최신정보를 담은 책을 써냈지요. 「서유견문」이라는 책은, 유길준이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하튼 그런 책이 나와 그 안에 도서관 소개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도서관을 보고 오고, 그 당시 일본도 형편없었지만, 근대도서관에 대한 짝이 조금씩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학교도 생기고 하니까 도서관운동도 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도서관에 대한 생각의 골자는 교육이었지요. 민중을

교육한다는 것이었어요. 역사의 가정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만일 한일합방이라는 소위 일제의 침탈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도서관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왔을 것으로 봐요. 공공도서관은 민중에게 교육한다는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것을 딱 중단시킨 것이 일본입니다. 식민지도서관이 생기니까 전혀 그것하고 관계 없는, 한국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풍속은 어떻게 생겼나, 언어는 무엇인가 등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중단되었어요. 해방 후 도로 찾아가지고 전통을 세워 책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계몽하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무슨 서비스정신도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뭐 그게 아니고 완전히 행정관리입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책 잃어버릴까 문이나 달고 앉았고, 이래가지고야 무슨 도서관이 발달하겠어요. 이것은 일제가 남겨 놓은 해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도서관하면, 역시 교육이라는 정신을 쫓 빼버리면 존립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보전달기능만을 위해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면 그건 뭐 특수도서관과 같은 거지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를 고려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소위 문민시대에 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요. 일제가 남긴 해독이 참으로 크더라고요.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교수님은 평생을 도서관과 함께 생활해 오신 분이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민주사회의 산물이 나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봐요. 민주사회아닌 봉건시대 도서관은 그 때 권력을 잡은 상층부의 도서관이지요. 귀족이나 왕실 중심의,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일반백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민주사회에서는 만민 즉, 모든 사람들은 책을 볼 권리 알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생겨났지요. 도서관은 만민에게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는데, 그렇다면 아무지식이나 보급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사회에 따라, 가령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 지식이나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그런 책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거지요. 아마 이복사회도 그럴 것입니다. 붕괴하기 전의 소련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에 가면 김일성 주체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중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자유에 관한 것들은 잘못 물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부 다 보일 것인가.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책들은 안보인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게 될 것이지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보여달라고 한다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서관이던 아무리 자유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사람들은 그거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 다름 아닌 공공도서관은 전국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자기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이 민중의 대학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독학하는 사람도

도서관에서 노력여하에 따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는 좋은책 리스트를 개발하여 권장하고, 청소년교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교육적 기능을 다 빼버리고 나면,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운영해오던 것은 진짜 컴퓨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지식만 전달하면 되니까. 집안에 앉아서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요소가 많다고 봐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도서관문제를 안일하게 넘겨버려서는 안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우리나라대로 무엇인가를 찾고, 공부하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연구방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맞는 이론개발이 절실하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너무 편향된 연구방법에 매여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기능중심의 연구방법, 해결해야할 구체적인 현상이 주변에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연구실에 앉아 가설을 세우고, 질문지를 돌리고, 통계를 분석하고 하는 연구태도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아직 소수이지만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이나 교육학 등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인 통계분석적 연구에서 보다 도서관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요. 대학원 학생들 논문도 밤낮 쏟아져 나오는데, 심사할 적마

다 한마디씩 하게 되지요. 이런 식의 논문은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사실을 증명하느냐. 연구자가 이런 각도에서 서베이하고 질문지를 돌리고 하면, 그런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법은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학생논문들이 질문지 돌려가지고, 가설 적당히 설정하고, 가설도 대부분 상식적인거지요. 가설이라는 것도 제대로 세울려고 하면,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으로 가설을 내세워야지, 이걸 뭐 상식적인 가설을 세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까, 질문지를 가지고 실태조사 방법을 그저 연습해보는, 내용의 좋고 나쁜 것은 우선 차치하고, 그 방법을 하나의 연습과정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나는 연구대상에 따라서 연구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연구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를 정해야지요. 연구방법을 제대로 선택해서 해야지 진리에 가까운거지. 그런식으로 한가지만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도서관학에 대학원과정의 역사가 얼마 안되어 아직 시험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새로운 문제제기도 자꾸 나오면,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똑같은 것만 답습해가지고는 발전도 없고, 테마에서도 빈곤해지지요. 한사람이 연구한 것에서 가닥을 조금 잡아 질문지를 돌리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한데, 조금 답답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노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문공해시대라는 것이지요. 논문나오는 것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것이 더 많다는 겁니

다. 애써 썼지만, 그 분야에 보탬도 안되고, 남한테 읽어보라고 돌릴 필요도 없는데, 아까운 종이만 버리고, 인쇄비 나가고, 제본비 나가고, 그래서 진짜 문제성있는 논문, 주옥같은 논문은 열편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것은 누구말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을 자꾸만 생산한다고 아주 악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구요.

그런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착실하게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부터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또 어떤 한 가지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던가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이상 한국도서관계에 활동해오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현장이나 학계에 대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해주십시오.”

모두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정신함양이라는 차원에서,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나는 연대출신이다, 나는 성대다, 나는 중앙대다 라고 하는 이런 것 좀 타파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우리학과 출신들에게 늘 그러지요. 연대출신, 중대출신, 시골의 어느 대학출신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문호를 열고 하자는 말입니다. 똑같은 실력이면, 거기서 자기동창을 찾는다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타대출신이라도 그 사람을 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을 초월해서 정말 학문 중심의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의 변화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문의 길에 들어선 대학원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훌륭한 연구와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